

# 원불교신문

www.wonnews.co.kr

제1794호 원기101년 (2016년) 4월 8일 금요일

원불교신문 원기101년 4월 8일 금요일

## 도덕·실력·창조인 키운 훈산학원



3월24일 우석고등학교에서 훈산학원 윤여웅 이사장, 김혜봉 전북교구장, 법륜스님, 교사·동문·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1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 훈산학원 개교 12주년 기념식 법륜스님 즉문즉설 특강 펼쳐

인재육성을 선도하는 학교법인 훈산학원이 개교기념식을 열고 학원 발전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3월24일 우석고등학교 영성당에서는 훈산학원 윤여웅(법명 신태) 이사장, 김혜봉 전북교구장 외 전북중학교, 전북여자고등학교, 우석고등학교 교사·학생·동문이 참석해 개교 12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에서는 해외연수, 하계 국토대장정, 만경강 에코대장정 등 훈산학원의 1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상영됐으며, 학교 발전에 힘쓴 9명의 교사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윤여웅 이사장은 “어느덧 개교 12주년을 맞이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

年之大計)라고 했다. 개인·가정·국가가 잘 되려면 교육을 잘해야 한다”며 “훈산학원은 현재 총 2800여 명의 학생과 250여 명의 교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교직원들이 동료 간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생각한다면, 학생들도 교사를 부모처럼 대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륜스님이 참석해 개교 기념식을 축하하고 즉문즉설 특강을 펼쳤다. 법륜스님은 “재밌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뜻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수업을 하면서 재미가 있어야 집중이 되고 효과가 따른다. 부모는 자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면 안된다”며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처럼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야 한다. 그것의 첫 바탕은 ‘재미’에

있다. 질문은 좋고 나쁨이 없다. 마음껏 묻도록 하고 재미를 느껴서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 훈산학원이 재미있고 유익한 가르침으로 한국의 새로운 창조 일꾼을 키워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북여고 박석중 교장은 “개교 12주년을 맞이해 모든 훈산학원 가족들을 만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다. 윤여웅 이사장님의 교육봉사 이념이 훌륭한 교사와 학생, 오늘의 훈산학원을 있게 했다”며 “훈산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재학생 또한 미래를 준비하며 꿈을 꾸고 있다.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한결같은 신념으로 훈산학원의 발전과 제자들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최지현 기자 ch@wonnews.co.kr